

農産物 加工産業 育成施策

農林水産部 農産物流通局

局長 申 洵 雨

수입 개방화에 따른 농어민의 대응력이 미약하며 생산위주 농업의 한계성이 커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은 강하지 못하며, 그간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공식품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서구화된 식품의 선호경향으로 인하여 가공식품의 수입이 증대되고 있는등 식품 소비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의 가공업 확대가 시급하나 자금, 기술, 인력부족 및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여건상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농수산부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으로서 5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를 산지 농수산물 가공사업의 주체로 육성하며, 둘째로 농어민에 의한 가공식품을 현재의 2%에서 30%로 提高하며, 셋째, 농어촌 실정에 맞는 가공기계를 개발하여 보급하며, 넷째, 가공식품의 표준 규격화와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도모하며, 다섯째, 전통식품의 수출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김치류, 한과류, 다류, 젓갈류, 산채류, 장류등의 전통식품을 개발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포장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과일주스류, 고추가루, 양념류, 김치류등의 산지 계열별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어 점차 참여의욕이 증대되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한 대표적 가공사업으로서 해남의 참다래주스, 경북의 능금 협동조합의 사과주스, 미농식품의 위생 고추가루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그외에도 가공원료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名品 가공센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 가공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산업과 농어민 공동사업 및 생산자 단체에 가공 기공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독일, 일본, 미국등지에서 개최된 농산물 및 식품 박람회등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앞으로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표준 규격화(KS)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제2녹색시대”라는 명칭하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회와 판매를 통하여 농산물 생산을 量위주에서 장차 質중심으로, 농어민의 활동범위를 생산위주에서 가공중심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농어촌 소득증대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금년 5월에 제정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4553호)”에 의거 하여 더욱더 가공산업 육성을 활발하게 지원할수 있게 되었다.